

# 텍스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은 만화

이선화\_시공사 편집부

출판물 특유의 물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수렴해나가는 시도는 편집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며, 독자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현태준 이우일의 도쿄 여행기〉는 개성 넘치는 두 만화가의 '따로 또 같이' 여행기다. 그림 스타일과 문체가 너무나 달랐지만(외모도 그랬다) 그들이 함께 떠난 도쿄 여행기는 '신통방통'하고 '재미'가 가득할 거라는 예측은 가능했다. 무엇보다 두 만화가는 보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서로 다른 탓에, 함께 떠났으나 발견하고 느낀 도쿄의 재미는 서로 다를 것임을 감안하여 각각 다른 장소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여행하고 작업한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기로 했다.

그리하여 늦은 봄날, 그들은 '디카'와 그림 도구가 든 배낭 하나 달랑 메고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래서 이 여행기는 애초의 컨셉트를 무난하게 맞춰갈 수 있었다. 글과 그림의 영역을 정하지 않고 각각 보고, 느끼고, 즐긴 도쿄의 면면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물론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낼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저자들의 글과 그림을 한 권으로 엮어내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두 만화가의 개성을 한 권의 책에서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기로 했다.

외모뿐 아니라 취향도 천차만별인 이들의 캐릭터는 본문 곳곳에 만화 속 주인공처럼 등장시켜 색다른 재미를 주기로 했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어려움은 많았다.

무엇보다 텍스트를 풍성하게 하는 일러스트와 사진이 아닌, 독립적인 이야기를 담은 만화를 텍스트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텍스트의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만화가 지닌 고유함을 살리기 위해 편집디자인은 미니멀하게 하는 것이었다. 재료의

질감과 향을 그대로 살리는 요리처럼 화려한 색감과 풍성한 재미가 가득한 글과 만화 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최소화하였으며, 꼭지의 제목부와 캡션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색을 쓰지 않았다.

단 상대적으로 만화컷이 적고 일러스트 요소가 강한 '현태준 편'의 경우는 디자인상의 아자기기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제목을 손글씨로 대체하기도 하고, 테마별로 대표 색을 정해 '배다'로 깔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칙 역시 별도의 디자인 요소라기보다는 그림과 만화의 일부를 디자인적인 요소로 살린 경우였다.

반면에 '이우일 편'은 글과 그림의 비중이 동일하고 그림의 색감이 화려해서 텍스트 부분은 가능한 심플하게 했으며, 작은 아이콘 그림 역시 사이즈를 줄여서 배치했다. 특히 수백 컷의 사진이 있었지만 만화에 포커스를 맞추어 사진의 비중은 최소화했다.

글과 만화의 '객관성'을 유지하자는 추상적인 합의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편집 디자인의 원칙은 한 가지였다. 바로 텍스트에 중점을 두고 사진과 그림을 도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줄 수 있는 만화를 이미지로 사용할 때도 '만화책'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글이 있는 페이지에는 가급적 만화적 요소를 배제했고 만화적 요소가 풍부한 것은 텍스트 없이 풀컷으로 가는 세부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한두 컷만 봐도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특징적인 작업을 하는 만화가들의 글과 그림을 한 권으로 엮으면서 억지스럽거나 개성을 해치는 편집이 되지 않기 위해 저자, 디자이너 모두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 **유니**